진정한 보수(保守)가 주는 감동

글 **진 희 숙** 음악평론가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가벼움' 이라고 말하고 싶다. 밀란 쿤데라 식으로 표현해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 라고나 할까. 영화도 음악도 연극도 소설도 드라마도 모두가 가볍고 또 가볍다.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재미를 가져다주는 것들이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대중의 감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것이다.

그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본의 아니게 보수주의자, 정통주의자, 고전주의자가 되어버렸다. 평소에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던 내가 이렇게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예술계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가 드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예술계에는 거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거장이란 예술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은 지금도 무대 위의 현역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예우를 받는 '원로' 와는 사뭇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 분야에 평생을 종사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물리적 시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긴 시간이 예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철학과 예술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거장은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작품 속에 삶의 진실을 담아내기 위해 애쓴다.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거나 싸구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구도자적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거장은 한 시대 문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장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한 경험은 그대로 그 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마련해 놓은 튼실하고 풍성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후대 예술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실험정신이 마음껏 그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으니 거장의 존재는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받쳐주는 튼튼한 하부구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장이 몇이나 될까.

얼마 전 TV를 통해 방영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을 다시 보면서 임권택, 정일성 감독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거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나는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춘향뎐〉의 영화적 가치와 그 작품성에 대해 논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굳이 영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춘향뎐〉이 판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 영화이기 때문이다.

은유와 비유 아닌 정공법으로 만든 영화 〈춘향뎐〉

나는 판소리 〈춘향가〉에 대한 그들의 접근방식에 주목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공법을 택했다. 고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현대적 재해석이나 상징적 처리 같은 우회적인 방법은 이 영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다. 소리예술인 판소리를 어설픈 의역이 아니라 정직한 직역으로 영상에 담아냄으로써 판소리 〈춘향가〉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눈과 귀로 느끼도록 했던 것이다.

특히 방자가 이도령의 분부를 받고 춘향을 부르러 건너가는 장면이나 포졸들이 의기양양하게 춘향이를 잡으러 가는 장면은 임 감독이 얼마나 원전인 〈춘향가〉에 충실하려고 애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방자와 포졸의 행동은 판소리의 사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영상으로 번역해 내려는 치열한 사실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춘향뎐〉

한편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조상현 명창의 〈춘향가〉 공연 장면은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소격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영화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판소리가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임감독은 판소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판소리가 공연되는 소리판의 분위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소리꾼과 관객이 혼연일체가 되어 울고 웃는 광경은 한국인의 정서에 판소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았던 외국 관객들은 아마 이 점을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영화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투신해 왔던 그가 은유와 비유의 방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정공법을 택했다. 칸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만든 영화에서 그가 우직하게 정공법을 택한 것은 이런 정통적인 접근만이 〈춘향가〉의 예술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자신감은 한 분야에 오랫동안 헌신해 온 거장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적중했다. 세계 영화 관계자들이 그의 작품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둔 예술적 성과가 결국 〈취화선〉으로 이어져 칸 영화제 감독상이라는 영광을 거머쥐게 된 것이 아닐까.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의 흐름으로 볼 때 〈춘향뎐〉은 지극히 보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를 그대로 번역하다니. 이 얼마나 무모하고 촌스러운 짓인가. 최첨단의 통신기기가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지구촌 시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가벼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밀란 쿤데라 식으로 표현해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라고나 할까. 영화도 음악도 연극도 소설도 드라마도 모두가 가볍고 또 가볍다.

대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판소리를 그대로 영상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다분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의 각 분야에서 〈춘향뎐〉과 같은 작품을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모두들 세계화, 현대화, 대중화라는 화두에 쫓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시대에 진정한 거장,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없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경향은 결국 앞에서 얘기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귀결된다. 음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소위 장르간의 벽을 허문다는 이른바 장르 파괴 작업인데, 이것이 세계화, 대중화, 현대화라는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음악계의 현실이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뛰어난 재능에 버금가는 주관적인 예술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중적 인기에 연연한 나머지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탕진하고 있으니 그들이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내공의 힘을 지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언제나, 한결같이 사물놀이여야만 하는가

지난달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의 전야제와 개막식은 현재 우리 음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음 월드컵 개막식을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반만년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풍부하고 다양한 전통문화가 있지 않은가.

지난 1988년에 치러진 서울올림픽의 예를 보아도 이런 식의 국제 행사가 그 나라의 문화적 잠재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훌륭한 기회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88 서울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그 예술적 내용에 있어서 그 전에 있었던 LA 올림픽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특히 화가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 건축가 가우디, 성악가 도밍고, 카레라스와 같은 걸출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개폐막식이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훨씬 밑도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올림픽의 개폐막식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이번에 치러진 월드컵 행사 역시 규모 면에서나 수준

월드컵 개막식 피날레의 가벼움은 그 전까지 가슴을 꽉 채웠던 감동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뺏아가는 것이었다. 아무리 음악에 대해 둔감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한국음악에 무지한 사람이라도 그 음악의 가벼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으리라.

면에서 국제적인 행사로 손색없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쉬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개막 전날 치러진 월드컵 전야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조수미의 열창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예정되었던 클래식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실망스런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한 아무런 대책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후에 이루어진 공연도 전체적인 구성에 짜임새가 없고, 졸속으로 준비된 듯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당시 전야제를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는 구성의 묘와 다양성, 창의적 아이디어가 부족했으며, 그래서 그저 평범한 TV 쇼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이런 느낌에 공감한다. 하지만 당시 내가 주목한 것은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이 공연이 우리 음악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

이날 첫 무대는 김덕수패 사물놀이가 장식했다. 이렇게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에는 거의 예외없이 사물놀이가 등장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은 곧 사물놀이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물론 세계 어느 민족보다 다양한 장단을 발전시켜 온 우리에게 사물놀이는 우리의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사물놀이가 어떤 자리에서나 판의 분위기를 단시간 내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물놀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에게 보여줄 음악 자원을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왜 언제나 한결같이 사물놀이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사실 공연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사물놀이가 등장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무대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대를 언제나 사물놀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우리 음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설혹 안다고 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사물놀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손쉽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사물놀이를 출연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 사물놀이가 출연하는 공연을 참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물놀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공연도 많았다. 그것은 연주자의 기량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었다. 김덕수패 사물놀이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사물놀이패가 출연한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과
전야제 장면

무대에서도 이와 같이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물놀이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버라이어티 쇼의 희생물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탁월한 예술성과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보았다.

월드컵 전야제도 그런 경우였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월드컵 전야제는 클래식과 사물놀이, 세계 각국의 대중가요와 새로 만든 월드컵 노래가 차례로 나열되는 공연이 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장르를 초월한 일종의 혼합무대인 셈인데, 이런 무대에서는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연주조차도 정말 가벼운 음악이 되어버린다. 공연의 유희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사물놀이 가락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디테일한 멋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공연을 볼 때마다 나는 공연을 기획한 사람들이 사물놀이의 진정한 멋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무대와 구성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대중가요와 서양음악, 재즈와 민요, 뉴에이지 음악 등 온갖 것들이 뒤범벅이 된 무대에서도 사물놀이 장단이 그저 신명나게 울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예술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장은 우리에게 아직 요원한 존재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건강한 에너지로서의 신명 아쉬워

다음날 치러진 월드컵 개막식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를 언뜻 내비치고 있었다. 이미 얘기했듯이 월드컵 개막식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된 한국의 전통의상이 특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장엄한 취타대의 연주에 이어 울려퍼진 〈수제천〉의 편곡음악 역시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임을 자랑하기 위해 제작된 세계 어린이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종이 비행기가 되어 월드컵 경기장으로 날아드는 장면이나 에밀레종 위에 재현된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등 곳곳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하지만 옥의 티라고나 할까. 한 가지 아쉬움 점이 있었다. 바로 음악이었다. 〈대취타〉나 〈수제천〉과 같은 전통음악이 주류를 이루는 전반부는 엄숙하고 장엄했다. 그 행진과 음악은 도도히 흐르는 외유내강의 물결처럼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손색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많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보수다. 알팍한 쇼맨십으로 대중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이 문화권력자가 될 때, 우리 시대의 가벼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슴 뭉클한 감동이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았다. 음악적인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두사미였다고 할까. 어떤 공연이든지 마지막 피날레가 중요한 법인데 여기서는 피날레가 음악적으로 가장 취약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취약했다기보다는 가벼웠다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피날레의 가벼움은 그 전까지 가슴을 꽉 채웠던 감동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뺏아가는 것이었다. 아무리 음악에 대해 둔감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한국음악에 무지한 사람이라도 그 음악의 가벼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으리라. 이것을 연주하느라 국악관현악단은 경음악단으로 전락하고, 경기장은 졸지에 쇼장이 되고 말았다. 장중하고 품위 있게 시작된 문화행사의 분위기가 후반부에서 갑자기 경박한 쇼맨십의 장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맺어주는 곳이 있으면 풀어주는 곳도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하고 장중하게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맺힌 것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공연의 피날레로 이런 식의 흐드러지는 마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과 흥겨움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명, 경박한 유희가 아니라 내일의 노동을 창조해 내는 건강한 에너지로서의 신명인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서울올림픽의 개폐막식 비디오를 다시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당시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음악이나 의상, 춤을 재현할 때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주로 전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간 것도 인상 깊었다. 그렇다고 여기에 전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대도 있었다.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에서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이 장엄하게 울려퍼지도록 한 것을 비롯해 요소요소에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어넣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전통과 현대 간의 균형을 꾀한 점도 인상 깊었다. 전통과 현대를 억지로 만나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 속에 그것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압권은 폐막식에서 있었던 〈떠나가는 배〉였다. 판소리에 나오는 〈뱃노래〉를 상황에 맞게 재현한 이 마당에서 김소희 명창은 그 특유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 고즈넉한 달밤에 떠나가는 배를 재현한 이 마당이야말로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마당이 아니었을까. 그후에 이어진 대금 시나위와 한영숙의 춤 역시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

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그때도 가벼운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라는 구성 속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진정한 보수가 필요하다

월드컵 개막식의 피날레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벼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것 역시 '한국'이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자행된 또 하나의 '가벼움'은 아니었는지. 대중적 인기를 위해 우리 음악을 유린하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왜 우리 음악계에서는 이런 작품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이 유린 행위가 과연 언제 끝이 날 것인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어느덧 전통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화권력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더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끊임없이 가벼움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음악적 기량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판단하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한 거장의 면모를 두루 갖춘 사람이 문화권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거장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때로는 이 권력이 독선으로 치우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실질적인 힘이 그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통찰력과 기량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음악계에 문화권력자의 위치가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보수다. 얄팍한 쇼맨십으로 대중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문화권력자가 될 때, 우리 시대의 가벼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춘향뎐〉의 진지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